



[경제종합]
가전 이어 車까지
직접 판다
D2C 전성시대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 | | | |
|------------|---------------------|-----------|--------------------------|
| 코스피 | 2376.46 (-33.65) | 코스닥 | 768.19 (-11.27) |
| 금리 (미국 3년) | 3.685 (+0.003) | 환율 (원/달러) | 1384.20 (+12.50) (7일) |

‘킹달러’ 시대... 명품은 기세등등

원·달러 환율 1384.2원 마감
6거래일 째 장중 고가 경신
5~6%대 고물가 현상도 지속
불황에도 ‘명품불패’ 이어져
명품시장 규모 1년새 30% ↑
百 성공 ‘에루샤’로 판가름



포항 참사현장 찾은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대비 환율이 1387원까지 기록하며 6거래일째 장중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7%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은 5~6%를 맴도는 고물가 현상이 하반기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고환율에 고물가까지 덮친 상황에서도 ‘명품불패’는 이어지고 있다. 새로 개점한 백화점의 성공 여부가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판가름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각 백화점들은 주요 점포에 에루샤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팬데믹기간 중보복소비에서 비롯한 명품 열풍이 유래없는 경제 불황의 시기에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명품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폭발하는 수요에 소비자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 명품 시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폭발적으

로 성장했다. 삼정KPMG가 발표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품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9.6% 급증한 5억 달러(약 7조3000억원)에 이르러 세계 10위권 명품시장으로 성장했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70억 달러(약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명품시장과 국내 명품 시장의 성장 추이는 반비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글로벌 100대 명품 기업은 총 2520억 달러(약 350조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는 전년도 2810억달러(390조 원) 대비 약 10% 줄어든 수치다. 점포 폐쇄와 소비자 수요 변화, 공급망 차질 등 평균 매출 성장률은 20%p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국내 매출규모가 약 30% 성장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훌쩍 넘은 매출 신장률을 보이면서 백화점 업계는 여전히 에루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지난달 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을 종료한 현

대백화점 목동점의 루이비통 매장의 행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더현대서울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일부 명품 브랜드가 지역당 매장 수를 한정 운영하는 만큼 플래그십 스토어인 더현대서울에 루이비통을 유치하려던 타 점포 매장을 폐점해야 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社告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대신 종이 빨대와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은 제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함께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철환 이노스파크건설링 상무,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친다.

- 행사명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 주 제 :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온라인 접속 : 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공지
 - 문 의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i14mini)을 드립니다.
*상기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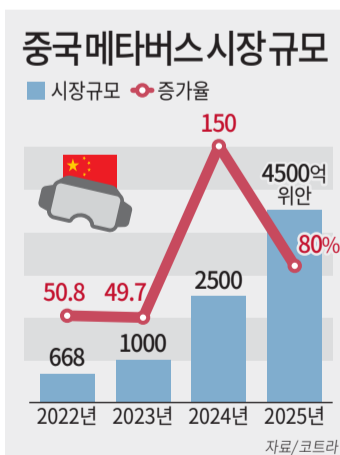


메타버스 속력내는 中... 韓 기술력 또 뺏길라

텐센트·넷이즈 등 中 기업들
AI기반 메타버스 사업 확장
막대 투자로 기술유출 우려

중국 IT 기업이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에 한국이 보유한 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IT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전문기업 텐센트와 게임 서비스 개발 업체 넷이즈가 AI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2022 세계인공지능 컨



퍼런스에서 넷이즈와 텐센트는 메타버스와 AI 신기술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텐센트 AI 연구소인 유투랩은

컨퍼런스를 통해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위한 AI기술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며 “메타버스의 수요를 위해 AI기술 개발에 총력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투랩은 특히 포토샵 등을 통해 피부보정, 신체부위를 축소 한 사진을 원본으로 복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가상인간, 시뮬레이션 등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분야에 앞서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

텐센트는 유투랩을 필두로 확장현실 전담 TF 팀을 구축하는 등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속력

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텐센트는 세계 최대 게임 회사로 메타버스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 텐센트는 지난해 첫 메타버스 프로젝트 ‘Zplan’을 가동시키며 세계 최대 샌드박스 게임사인 로블록스(Roblox)에 5.2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중국2대 게임사인 넷이즈는 3D 온라인 화상 플랫폼 ‘야오타이’를 선보였다. 야오타이는 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구현했고 12종의 회의 환경과 100개 이상의 개인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장신구, 아이템들이 포함돼 있다.

넷이즈는 AI실험실을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게임 가상공간에서 AI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부터는 하이난 정부와 협업하여 ‘메타버스 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류바이 넷이즈 총괄은 “게임 개발을 위해 야오타이를 구현했다”며 “온라인 전시 기능을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물류,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전자상거래 활용을 통해 XR 실험실을 구

축하는 등 VR, AR, XR 투자에 집중한다. 이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는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시랑’을 공개했다.

또 중국 대표 숏클립 동영상 기업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VR 제조사 피코를 인수해 하드웨어까지 확대했고 메타버스 보유 기업 투자로 기반을 구축했다. 여기에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2개를 출시했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정청래 “윤석열, 아내라도 혐의점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야” /사진 뉴시스
- ▲ 與 과방위원장, ‘정청래 사퇴 결의안’ 제출... 상임위 불참키로

- ▲ 6년 만에 한일 국방차관 회담... “초계기 문제 실무 수준에서 논의”
- ▲ 이재명, ‘펠로시 패싱’尹겨냥 “韓전기차 업체 패싱 초래... 외교실패”



- ▲ 민주당,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정보공개 특별법’ 발의 /사진 뉴시스
- ▲ 與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금 지원 등 전폭적 대책 마련”